

9 ● ● 섬유제조업 나염작업자에서 발생한 소뇌운동실조증

| | | | | | | | |
|----|----|----|-----|----|-----|-------|----|
| 성별 | 남성 | 나이 | 55세 | 직종 | 나염공 | 직업관련성 | 낮음 |
|----|----|----|-----|----|-----|-------|----|

1 개 요

근로자 ○○○은 1994년 5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모포가공부 나염과에서 나염 원료를 배합하고 배합한 원료를 나염 제조라인에 공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2004년 다리에 힘이 없고, 두통, 어지러움증 있어 치료받았고 2009년 소뇌운동실조증 및 다계통위축증을 진단받았다.

2 작업환경

○○○은 모포 가공부 나염과에서 모포 염색을 위해 공업용 물품을 물과 혼합한 후 CS, 플라먼티, 공업용 빙초산, 안료를 섞고, 여러 가지 제품의 색을 내기 위해 여러 색의 염료(레드염료, 엘로우 염료)를 조제하였다. 배합실에서 배합 희석용 신나를 나염 제조 라인에 배합된 재료를 투입할 때 1일 20kg 정도 사용하였다. 작업환경측정은 개미산(formic acid)과 톨루엔을 측정하였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측정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었다.

3 의학적 소견

○○○은 2004년 5월 근무 중 다리에 힘이 없고 두통, 어지러움증이 있어 치료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고 2008년 5월부터 보행장애, 불면증이 심해지다가 2009년 소뇌운동실조증 및 다계통위축증을 진단받고 질환 치료중에 있다.

4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의 소뇌운동실조증 및 다계통위축증은 약 12년간 신나를 매일 20kg정도 취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5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로 유기용제의 노출수준이 높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노출 빈도에 비하여 노출 수준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다계통위축증 특히 소뇌성운동실조의 직업적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